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46장 티와 들보

『산상설교』 하권 제46장, 인쇄 214~228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7:1~5

❓ 남의 잘못을 따지지 말라는데, 왜 그래야 하고 정말로 남의 잘못을 고쳐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앞 장(45장)에서 “비판하지 말라”의 뜻을 살폈다. 이 장에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차례로 꺼낸다. 첫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를 밝히려고 그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심판, 곧 최종 심판·자녀의 징계·보상의 심판을 구별한다. 둘째 이유는 우리가 남을 재는 잣대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실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유는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애초에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결론에 이른다. 비판하는 정신 자체가 들보다. 먼저 나를 판단하고 겸손과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 줄 수 있다.

📜 절별 정리

📜 1. 첫째 이유: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로이드 존스는 1절을 “남이 너를 비판하는 게 싫으면 너도 하지 마라”는 뜻으로만 읽는 해석부터 짚는다. 이는 결국 보복을 조심하라는 말이 된다. 그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읽으면 큰 잘못이라고 본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비판받지 않으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그러자 복음적

혼란이 성경의 세 가지 심판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다고 진단한다. 그는 그 뿌리도 지적한다. 이신칭의(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지나치게 앞세우다 보니 다른 교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이런 신자들이 성경과 교회사의 경건한 사람들과 달리 경솔하고 요란하고 피상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1. 1절은 보복을 조심하라는 뜻만이 아니다
2.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3. 반론: 신자에게는 심판이 없다(요한복음 5:24)
4.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 심판을 섞은 데 있다
5. 이신칭의만 강조하면 경외심을 잃는다

> **마태복음 7:1**
> 설교 본문. 비판하지 말아야 할 첫째 이유
>
>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요한복음 5:24**
> 반대자들의 근거.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 **로마서 8:1**
> 반대자들의 근거.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
>
>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2. 첫째와 둘째 심판: 최종 심판과 자녀의 징계

첫째 심판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로이드 존스는 성찬을 다룬 고린도전서 11장을 근거로 든다. 거기서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까지 생겼다고 말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하나님이 병을 직접 보내셨다는 뜻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를 거두시고 마귀가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다고 풀이한다. 고린도전서 5:5의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도 같은 맥락에서 읽는다. 그래서 신자가 "믿으니까 다 오케이"라며 경솔하게 살면 안 되고,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 히브리서 12:6이 말하듯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 끝에는 갑자기 닥칠 영원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 최종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는 것이다(고린도전서 11:32).

1. 최종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가른다
2. 신자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
3. 그러나 자녀로서 받는 징계는 있다
4. 징계는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는 사랑이다
5. 형통하는 악인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 **고린도전서 11:27~32**
> 신자도 징계를 받는다는 핵심 근거. 약함·병·죽음까지
>
>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 **고린도전서 5:5**
> 회개를 거부한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는 심각한 징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2:6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시련 중의 위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시편 73:1~13

악인의 형통을 보고 흔들린 시인. 그 형통은 착각이다

[1]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3]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

"잘못되어 가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더 두려워해야 한다"

📜 3. 셋째 심판: 신자의 삶에 대한 '보상의 심판'

로이드 존스는 '보상의 심판'이라는 이름이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며, 성경은 이를 분명히 가르친다. 로마서 14:10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3장은 각 사람의 공적이 불로 시험받는다고 말한다. 나무·풀·짚은 타 버리지만 그 사람은 "불 가운데서 받은 것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본문은 특히 목회자의 사역을 가리킨다. 반면 고린도후서 5:10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한다. 이

가리킨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해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디모데후서 1:16~18)도,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요한계시록 14:13)도 같은 가르침이다. 결론은 이렇다. 남을 비판하는 자는 이 심판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구원은 잃지 않아도 무언가를 잃게 된다. 그러니 그 날에 부끄럽지 않으려면(요한일서 2:28) 지금 조심해야 한다.

1. 신자의 행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선다
2. 이 심판은 천국·지옥을 정하지 않는다
3. 영광 안에서 받을 것에 영향을 준다
4. 각자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
5. 남을 비판하는 자는 무언가를 잃는다

> **로마서 14:10**
>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
>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 **고린도전서 3:13~15**
> 공적이 불로 시험받는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
>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 **고린도후서 5:10~11**
> 신자 모두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
>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갈라디아서 6:5

각자 자기 짐을 진다. 개인의 책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디모데후서 1:16~18

오네시보로가 그 날에 긍휼을 입기를 비는 기도

16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18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요한계시록 14:13

주 안에서 죽은 자의 행한 일이 따른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일서 2:28

그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조심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잃게 되지는 않아도 무언가를 잃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 4. 둘째 이유: 내가 쓴 잣대로 내가 재어진다

2절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를 원칙으로 보여 준다. 남을 비판하면 심판을 부를 뿐 아니라, 내가 받을 심판의 기준까지 내가 정하게 된다. 흔히 “보복을 받기 마련”이라고 하듯, 남의 사소한 결함을 들추던 사람은 남이 자기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면 크게 놀란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쓴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12:48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말한다. 로마서 2:1은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안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니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셈이다. 가장 분명한 진술은 야고보서 3:1,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이다. 로이드 존스는 야고보가 이신칭의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이 구절이 소홀히 다뤄진다고 지적한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주님의 종이라고 자처한다면 바로 그 주장으로 심판받는다. 그때 불평할 근거는 없다. “너는 알고 있었고 남에게는 적용했으면서 왜 너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남을 정죄하며 즐기는 추악한 영에서 우리를 지켜 줄 것은 이 사실 말고는 없다고 말한다.

1. 비판은 내가 받을 심판의 기준을 정한다
2. 남에게 들이댄 잣대가 나에게 돌아온다
3.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4. 권위자를 자처할수록 더 엄히 심판받는다
5. 그때 불평할 근거는 없다

> **마태복음 7:2**
> 설교 본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
>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 **누가복음 12:48**
>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는 원칙
>
>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야고보서 3:1

선생 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가장 명백한 진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 5. 셋째 이유: 우리에게는 판단할 능력이 없다

3~5절은 주님의 “놀라운 풍자”다. 셋째 이유는 우리가 비판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아예 시도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주님의 논증을 세 단계로 푼다. 첫째,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 진리와 의에 관심이 있다면 자기 자신부터 비판할 텐데, 우리는 자신은 통과시키고 남만 비판한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예술가와 비평가를 예로 든다. 노래든 연극이든 그림이든, 그들은 남의 작품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기 작품에 엄격하다. 객관적 기준을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원칙이 아니라 '인신', 곧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 속의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다. 그는 배심원 예화를 든다. 피고와 사적 관계가 있으면 배심원은 자격을 잃는다. 편견과 사적 감정이 섞이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비판에는 이런 숨은 동기가 너무 많아서 사람과 행동을 구별하지 못한다. 셋째, 4절이 말하듯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없다. 티를 빼는 일은 너무 섬세한 작업이라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

1. 진리를 위한다면 나부터 비판할 것이다
2. 위대한 예술가는 자기에게 가장 엄격하다
3. 우리 관심은 원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다
4. 편견 있는 배심원은 재판할 수 없다

마태복음 7:3

남의 티는 보고 내 들보는 못 본다. 판단 능력이 없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4

들보가 있으면서 티를 빼 주겠다는 풍자. 도울 수 없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 6. "외식하는 자여": 들보를 먼저 빼고 사랑으로 말하라

끝으로 주님은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라 부르신다. 우리는 남을 걱정하는 척하고, 그의 결점을 발견해 괴로운 척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점을 찾아낸 것을 기뻐한다. 친구라며 찾아가 “당신에게 이런 결점이 있다니 수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 속의 판단하고 혹평하는 정신이 바로 들보라고 말한다. 남이 불륜이나 육신의 죄를 짓거나 작은 과오를 범했더라도, 그것은 이 비판의 영에 비하면 티에 지나지 않는다. 실천 방법은 이렇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다. 남에 대해 하는 내 말을 조용히 분석하고 그 의미를 스스로 묻는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비판의 영을 없애는 길은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하나뿐이다. 그는 눈을 치료하는 일에 비유한다. 손가락이 닿기만 해도 눈꺼풀이 닫힐 만큼 눈은 예민하다. 그래서 눈을 치료하려면 공감·인내·침착이 필요하다. 영혼을 다루는 일은 더 섬세하다. 자기 죄와 하찮음을 아는 사람은 남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보다 흐느낀다. 그런 사람이라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에베소서 4:15) 말할 수 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감사하게 들린다. 반면 사랑 없이 말하는 사람의 말은 듣는 이가 즉시 자기를 변호하고 그를 미워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서 1:19,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로 설교를 맺는다.

3.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고 내 말을 분석하라
4. 눈 치료처럼 공감과 인내가 필요하다
5.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돕는다

마태복음 7:5

먼저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티를 뺄 수 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비판의 영을 다스리는 매일의 실천 본문

[1]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

에베소서 4:15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도움의 방식이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야고보서 1:19

듣기는 속히,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비평과 혹평의 영을 제거하는 데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데, 곧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이신칭의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교리.

최종 심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가르고 천국과 지옥을 확정하는 영원한 심판.

징계
하나님이 자녀를 바로잡으시려고 이 세상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훈련과 벌.

보상의 심판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믿은 뒤의 삶을 평가받는 심판. 천국·지옥이 아니라 영광 안에서 받을 것에 관계된다.

외식(위선)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 선하고 경건한 척하는 것. 여기서는 남을 걱정하는 척하며 정죄를 즐기는 태도다.

인신
원칙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비판이 인신을 향하면 사람과 행동을 구별하지 못한다.

티와 들보
눈에 든 작은 먼지와 큰 나무 기둥. 남의 작은 허물과 내 안의 큰 죄(비판의 영)를

불편부당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적 감정 없이 공정한 상태.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신자는 최종 심판을 면했지만, 이 땅의 징계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의 평가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남을 비판할 때 쓰는 잣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재실 잣대가 된다.
- 우리는 편견과 숨은 동기 때문에 남을 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없다.
- 비판하는 정신이 들보다. 자기를 판단하는 것만이 그 들보를 빼는 길이다.
- 들보를 뺀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 형제를 도울 수 있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